

절망의 끝에서 예수를 만나다

(사도행전 16:22-34)

고대 빌립보는 가파른 언덕 위의 견고한 성벽과 요새를 갖춘 군사적 요충지이자, 로마로 연결된 도로와 화려한 대리석 건물들이 즐비한 '작은 로마'였습니다. 대형 체육시설과 목욕탕에서 사교를 즐기던 시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맞은편 팡가이온산에서는 매년 34,000킬로그램의 금이 채굴되어 도시의 경제적 번영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 뒤편에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바쿠스) 신전을 비롯해 로마와 이집트의 온갖 우상이 혼재된 영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야외극장에서 문화를 즐기고, 신전에서 복을 빌며, 금광에서 노다지를 캐내는 지극히 세속적인 삶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 한밤중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를 거칠게 고발하던 군중도,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모진 태형을 가했던 집정관들도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사도들을 지하 깊은 감방에 가두고 발에 족쇄를 채운 간수들마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도로는 다시 물자와 군인들로 붐빌 것이고, 세상 그 누구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온몸이 피딱이 되도록 맞았고, 좁은 지하 감옥에서 족쇄에 묶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벽한 고립과 절망의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문이 닫힌 순간, 바울과 실라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뒤집어 보면, 세상 권세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격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통로만큼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으시며,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출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두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는 대신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영혼의 노래를 다른 죄수들이 듣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건물을 무너뜨려 사람을 해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옥 문을 열고 모든 죄수의 족쇄를 완전히 벗겨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두 사도에게는 이미 고난과 형통의 경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형통이란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매를 맞아도 견디고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이라는 본분에 충신했던 사도들에게는 감옥조차 형통의 자리였습니다. 반면, 잠에서 깨어 열린 옥문을 본 간수는 죄수들이 탈출했다고 확신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로마 형법상 탈옥이 발생하면 간수가 목숨으로 대신 갚아야 했기에, 고문을 당하며 비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간수가 아는 좁고 '닫힌 세계'에서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간수가 인생을 끝내려던 순간, 감옥 깊은 곳에서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도망칠 완벽한 기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도들의 태도에 간수는 거대한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간수가 자유인이고 사도들이 죄수였지만, 실상은 간수가 세상의 책임과 죽음의 공포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였고, 두 사도는 감옥 안에서도 무한한 당당함을 누리는 진짜 자유인이었습니다.

간수는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인간 존재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에는 "당신들이 누리는 그 위대한 자유의 비밀은 무엇이며, 나도 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답게 살고 싶다"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자 갇힌 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는 단순히 사후 세계의 티켓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스스로 종말을 선언하는 간수의 '닫힌 세계'를 깨부수고, 인간의 계산과 절망이 전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열린 세계'로 초청하는 도전이었습니다. 간수는 매를 맞고 죽음 앞에 서서도 흔들림이 없고, 인생에 단 한 줌의 후회나 억울함도 없는 두 사도의 초연한 모습을 통해 자기가 아는 세계가 전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기복주의적 '부동산 청약 티켓'처럼 전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을 그저 천국 분양권을 쥐고 입주 날짜만 기다리는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삶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 온유, 관용, 긍휼을 잃어버렸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길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도망쳐 나왔다면 그날 밤 간수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두 사도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힌 고난은, 사실 그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감옥에 갇힌 자를 통해 죄악에 갇힌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인생의 모든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룩한 '소명의 자리'입니다. 나에게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물질이 풍족한 곳이든 궁핍한 곳이든, 평안한 가정이든 고통스러운 병원과 감옥이든 모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삶과 죽음의 경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 때, 내 삶은 세상의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지금 처한 모든 자리가 소명의 자리임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당당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